

#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 ‘총력’

익산시 ‘다이로움 취업박람회’… 청년 취업 지원·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성과’  
1:1멘토링·면접 컨설팅·취업기회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박람회로 자리매김

지난달 대한민국 청년 실업자가 120만 명으로 집계됐다. 고용 불안정이 위협할 수준에 이르러 있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청년 실업’ 문제는 국가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다.

청년 고용 안정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뿐 아니라 결혼, 출산 등 사회적 요소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도시의 취업난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 어려움이 익산시가 올해 청년의 꿈을 실현하는 청년전국을 만들겠다고 팔 걷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다이로움 취업박람회’가 어떻게 지역 청년과 함께 난관을 이겨내고 있는지 짚어봤다.

지난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는 2023년 출발 이후 지난 2년간 익산시 청년 정책을 대표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광장으로 자리 잡았다.

청년에게는 취업 기회를, 지역기업에는 필요한 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취업박람회에 창업박람회를 더해 한층 강화된 전략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가 운영하는 다이로움 취업박람회의 목적은 ‘취업 성공률’이라는 숫자에만 있지 않다.

세심한 지원을 받은 지역 청년들이 작은 성공의 경험을 발판 삼아 자신감

을 회복하고 결국 사회의 한 부분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청년시장은 취업박람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든든한 조력자다. 이곳에서는 거듭된 실패에 지친 청춘도, 아직 도전할 용기를 내지 못한 이들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며 꿈을 향해 작은 걸음을 내딛는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위로와 힘이 된다.

실제 그동안 시는 청년시청에서 열리는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를 통해 총 4,000여 명의 구직자와 279개 기업 및 기관이 현장에서 만나는 실질적 채용 기회를 제공했다.

참여 청년들은 다양한 기업 정보를 얻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취업 성공률을 높였다. 참여 기업은 우수한 지역 인재를 확보해 장기근속률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얻었다.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박람회라는 점이다. 보건·의료 분야 박람회부터 금융기관·공공기관 채용설명회, 여성친화 취업박람회,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식품산업 맞춤형 박람회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자와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시는 박람회를 통해 구직자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 이미지 메이킹, 현직 인사 담당자와의 1:1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유명 인사를 초청한 취업 콘서트 행사는 청년들의 자신감과 도전 정신을 높이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시는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다이로움 취업박람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감 있는 취업의 장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익산 통합일자리센터’를 가동해 분산된 일자리 정보를 한데 모아 시민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박람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매달 개최하던 방식에서, 격월제로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

올해부터는 짝수달 세 번째 화요일마다 청년시청에서 취업박람회가 열린다. 시는 구직 청년뿐만 아니라 창업 희망 청년에 대한 지원의 폭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청년들이 익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취업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 ‘어업인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수산업·어촌 공익적 기능 보전·증진… 5월 16일까지 접수

군산시가 올해 어업인 공익수당(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지급 신청을 받는다.

어업인 공익수당은 어업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신청은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경영체’이며, 신청년도 기준 어업 관련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업업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경영한 어업인이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 △수산업 보조금 부정수급, 수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어업 취소·정지·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농민 공익수당을 수령한 경우 △어업 기능(어업 인허가) 유지 등 이행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어촌계장 및 이·통장으로부터 어업활동사실위원회를 통하거나 개별어업인(어업경영체)이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6일까지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 2년 연속 아시아 피너클 어워더서 ‘성과’

‘군산문화유산야행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베스트 프로그램 수상

군산시는 경주에서 개최된 세계축제협회(IFEA World) 아시아 지부 주최 2025년 아시아 피너클 어워드에서

‘군산문화유산야행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프로그램’이 베스트 어린이 프로그램(Best Children’s Programming)을 수상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로써 ‘군산문화유산야행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프로그램’은 2년 연속 베스트 어린이 프로그램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이번 수상으로 세계대회 본선 진출해 여러 축제 프로그램들과 경쟁을 하게 되었다.

세계축제협회(IFEA World)가 주최하는 ‘피너클 어워드’는 축제 올림픽

으로 매년 세계에서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시상하는 대회이다.

‘군산문화유산야행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프로그램’은 지역 초등학생들이 국가유산 해설사가 되어 직접 국가유산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2년 연속 ‘베스트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고, 피너클 어워드 세계대회까지 진출할 수 있게 돼 영광이다. 올해는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운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군산국가유산야행은 8월 22~23일, 8월 29~30일 2회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 익산 옹포 곰개나루, 친환경 여행지로 변신

29일, 곰개나루서 '여친소 익산' 행사 개최… 플로깅 등 친환경 프로그램·다양한 볼거리 운영

익산시가 여행과 환경을 결합한 이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2025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프로그램인 ‘여친소 익산’을 오는 29일 옹포 곰개나루에서 개최한다.

여친소 익산은 ‘여행은 친환경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익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여행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탄소중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곰개나루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에코 플로깅’, 페트병 볼링과 같은 재활용

놀이터,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만들기 체험 등이 진행된다. 또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마술 서커스, 국악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는 3월 2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행사 추진단(070-4733-94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친소 익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1,000만 관광객이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함도문화전자대전